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제가신도 법계**

한국불교에서 재가불자는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 것일까? 재가불자라면 한번쯤 물어보는 의문이다. 고급불자라고 할 수 있는 법사나 포교사의 경우도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하고 자격증 하나 판정으로 만족해야 하는 실정은 얼마나 불교자원이 낭비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또 기본·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포교사가 된 이후의 후속교육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재가신도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재가신도 법계를 두자는 것이다. 재가신도 법계는 법계별로 일정기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그에 따라 권리와 의무도 부여하여 불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신도들에게 신앙에 대한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고 당해사찰과 종단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져다줘 적극적인 불자로서의 지속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불교 입문자에게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이어 기본교육, 전문교육기간을 거쳐 포교사로서 응시할 수 있는 단계에서 중앙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지도자교육을 통해 신도교육을 맡고 신령지도 상당승스님을 보조하거나 신령단체 지도법사 등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전법사자격 취득을 하자는 것이다.

이런 재가신도 법계제도가 실시될 때 교단은 신도 조직화를 꾀할 수 있고 재가신도의 전문적인 식견을 활용하여 불교의 사회적 역할까지 해낼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우후죽순처럼 번지는 가짜 법사의 양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범종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원우 기자(wkim@buddhania.com)

**생명나눔 10월 대법회** 현철·화장 유언 사후장기기증 서약

◇ 일시: 10월 16일(토요일) 오전 9시  
 ◇ 장소: 경북 영천 은혜사  
 ◇ 주최: (사)생명나눔실천회 · 현대불교신문사  
 ◇ 문의: (02)734-8050

## 총무원장 재선거 불가피

“조계종 고산스님 선출무효”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

서울지법, 직무대행에 도전스님 선임

서울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수형)는 2일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문을 통해 “고산 총무원장은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 판결 확정시까지 총무원장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며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도전스님(원로의인)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앞서 1일 정영스님이 제출한 조계종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고산 총무원장의 자격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회 임시총회

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며, 이 총회에서 개정된 총무원장선거법에 근거한 총무원장선거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스님과 정영스님이 낸 총회의원 자격상실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스님과 정영스님은 지난 해 11월 14일 열린 원로회의에서 총회를 해산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로회의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산 결의는 효력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과 교육원은

포교원 중앙총회 호계원은 2일 원로회의의 의장 탄성스님 주재로 총무원4층 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재선거 실시 여부와 현 고산 총무원장 재선거 유지를 놓고 장시간 논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 판결에는 반대하나, 총무원장 직무대행과 대외의 여지를 남겨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범종수호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총회의장 범종스님은 “종도들과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중앙선관위와 본사주지스님들과 협의, 정상 절차를 밟아 선거를 치러 새 집행부를 탄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화개혁회의는 1일 판결 직후 “법원 판결과 종원중립에 의거해 종단 정상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판결유감...종단 안정위해 항소”

총무원·총회 등 범종수호대책위 구성

조계종 원로의인 탄성스님과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중앙총회는 2일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지법 민사 42부의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또 범종수호대책위를 구성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탄성스님은 이날 발표한 유사에서 “깊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며, 향후 종도들의 뜻과 역량으로 대처해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은 공동담화문과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판결은 종단의 안정과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자와 국민들의 염원에 반한 것이며, 당시 선거절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곧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3일은 이어 원만하고 여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종도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최종판결 때가 지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총회의장단은 “조계사가 불법정권하의 간악한 상황을 고리치 않고 사법부가 종회의 소집공고 절차의 하자를 문제삼아 종단을 분규의 회의로 물아넣는 이번 결정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만으로 내려졌는지의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며 “불교를 말살하고 이용하려는 세력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사와 중앙선도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종단을 혼란으로 몰아가는 중대한 오인으로 풀이되는 중대한 오인으로 받아들이 수 없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타이완 만불사 지진 피해 9월 21일 새벽 발생한 강진으로 폐허가 된 타이완 우펑에 위치한 만불사. 28~30일 재해현장을 방문한 한국불교법종총 총무원장 효성스님(중앙사 주지)은 33m의 옥외불상과 법당 2동, 요사채 4동이 무너져서 큰 피해를 입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으며 본사에 사진을 제공했다. <관련기사 22면>

## 해인골프장 환경평가 '부실'

서식식물 184종 누락...대구환경연 "건설 백지화" 성명

강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9월 28일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접수된 150건의 평가서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인 가야개발이 작성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분포식물군이 상당수 누락돼 있을 뿐만 아니라 녹지자연도도 고의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야개발이 작성한 평가서에는 59과 138종의 식물이 골프장 예정지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81과 322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184종을 누락했다. 또 11개 식물군락을 누락한 채 6개 식물군락만이 분포한다고 보고돼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감사결과가 공개된 9월 28일 성명을 통해 사업부에 대해 “엄타리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반영해 해인골프장 건설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인골프장 건설사업과 관련해 허가무효확인과 착공연기 불허 취소 등 2건의 행정소송이 계류돼 있다.

한원우 · 이윤호기자 (mwhan@buddhania.com)

## 제5회 신행수기 공모

교계의 정경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이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가슴에 담아 두어온 강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후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 게재됩니다. 2000년에 발표되는 신행수기 공모에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 원고지 30매... 마감 12월18일
- △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락
  - △ 마감: 1999년 12월 18일
  - △ 당선작 발표: 2000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 △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02)722-4162
  - △ 시상내역:
    - ◇ 대상(유마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 우수상(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 특별상:
      - 종단협의회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한태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관음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 담 회 문

존경하는 원로대덕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  
 지난해 우리 종단은 종단에 눈이 먼 소위 정화개혁회의의 일부 폭력승들에 의해 종단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으며, 그 동안 사부대중이 밤낮로 쌓아 올렸던 사회적 위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내리는 참담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다행히도 애종심과 파사현정의 일념으로 종단을 바로 세우려는 스님과 신도 여러분의 의지를 모아 지난 12월 새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를 치르고 고산 스님을 제 29대 총무원장에 선출하였습니다.

고산 총무원장스님은 종단의 산적한 문제 가운데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지난 30여 년 동안의 정제자에 대한 사면 복권을 단행했으며, 지난해 사태를 야기시킨 폭력승들에 대해 징계를 최소화하는 데 온갖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지방법원(민사제42부)이 현 고산 총무원장의 자격 없음을 판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판결이 소위 정화개혁회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단 운영의 적법성이 정화회의의 측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오늘 함께 판결한 총회의원 자격 상실 소송에서 정화회의의 측의 기존 주장을 일축하고 현 종단의 승소를 판결한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 종단체제의 적법

성을 더욱 강고히 인정했다는 면에서 더욱 큰 의의가 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종단 집행부에서는 오늘 판결로 인해 종단문제가 다시 사회문제로 비화되거나 또 다른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단의 원로대덕스님의 의견을 물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종도 여러분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종단 집행부의 방침을 지켜주시고 이에 적극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폭력에 의해 종권을 찬탈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허황된 정화개혁회의는 그런 시대착오적 착각을 접어두고 종단의 화합과 안정 그리고 발전을 위해 종도들의 여망을 살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야만 종도들의 관용과 화합이 가능하며 화합종단의 기틀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염원해왔던 원로대덕스님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원만하고 여법한 해결책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